

시인의 書架

具 常

시인·중앙대 대우교수



觀水齋이야기

사랑채가 딸린 단독주택을 지닐 가정 형편이 못되는 지라 나는 궁리 끝에 지난 80년초부터 아파트 옆동의 20평짜리 한채를 마련하여 이를 서재로 쓰고 있는데 현 관에는 ‘觀水齋’란 팻말이 붙어 있다. 소위 이 堂號는 6·25피난시절 내가 낙동강변 倭館에다 조그만 시골집을 마련했을 때 풀州的의 시인 薛昌洙형이 이름붙여 준 것으로, 서울에 올라와서도 여의도에 살게 되어 날마다 한강을 마주하므로 여기에도다 써붙여 놓은 것이다.

한문으로 물(水)은 마음(心)과 한뜻의 글자이어서 나의 서재에는 딱 떨어진 이름이다. 그래서 서재 한벽에는 “觀水洗心(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씻는다)”이란 書額이 하나 붙어 있다. 그리고 실제 나는 강을 제재로 하여 連作詩 60편을 써서 「그리스도 폴의 강」이란 시집을 펴내기도 하였다.

이 관수재에는 거실이나 방이 책으로 메워져 있는데, 내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만권쯤 되지 싶다. 책이래야 珍書나 희귀본은 없고 나의 본업의 시집이 한 3천권쯤 되는데 개인소장으로는 가장 많지 않을까 하며, 그외는 모두가 인문 중심의 雜同散異다.

나는 밤에 잠까지도 여기서 자며 생활을 하는데, 세끼 밥은 집에 가서 먹고 물병 하나를 들고와서 지내는 지라 손님이 와도 차 한잔 대접 않고 맨입으로 보낸다. 물론 전화도 없고 여기 있는 시간은 세상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셈인데, 이런 나의 생활태도가 처음에는 “만나기 힘들다”고 좀 오해도 받았지만 이제는 거의 알려져 있어 그런대로 ‘마이 페이스’를 유지한다고나 하겠다.



